

‘신당’ 초반 기사움 팽팽

창당시기·콘텐츠·5대 5 원칙 놓고 민주·새정치 ‘밀리면 안돼’ 신경전

‘제3차 신당 창당’ 협의에 들어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기사움이 초반부터 뜨겁다. 창당 시기와 콘텐츠, ‘5대 5 지분 참여’에 대한 해석 등을 놓고 양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논리를 펼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창당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6·4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는 급한 대로 신당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3월말 창당’을 밀어붙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정치의 콘텐츠’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당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새정치연합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4일 MBC라디오 ‘신동

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이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언제든지 (신당 창당을) 깰 수 있다는 각오를 갖고 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창당 시점을 3월말로 제시한 데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새정치의 바람을 정강정책이나 당헌당규에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당 시점은) 민주당이 얼마나 결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3월말까지는 비슷한 일정인데, 시간에 쫓겨 일방적으로 가는 일

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신당추진단 첫 회의에서 민주당 측 단장인 설훈 의원이 “3월말까지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제대로 된 내용은 신당을 만든 뒤에 하나하나 국민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창당을 재촉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그날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당을 만들지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서로 합의한 ‘5대 5’ 지분 구조를 놓고도 양측은 해석을 달라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은 ‘비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선언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

는 것이다.

민주당 창당준비단 정무기획팀 소속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5대 5라는 건 양측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양해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이게 어떤 지분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반면, 안 의원 측 새정치연합 송호창 공동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이나 당원 숫자가 아닌 국민의 기대를 봐야 한다”며 “동등한 권한과 자격”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교조 출신 후보단일화 오늘 결판

윤봉근·정희곤 경선 참여 요구에 장휘국 시교육감 입장 발표 예정

전교조 출신 광주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쟁이 5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정희곤 광주시의회는 4일 장 교육감에게 경선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 장 교육감이 5일 오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전교조 출신 윤 예비후보와 정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후보 추대와 같은 배제적 단일화가 아닌 통합적 단일화가 시민의 뜻”이라며 “장 교육감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조곤없이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두 후보는 장 교육감에게 5일 오전 11시까지 단일화를 위한 경선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 측은 “교육운동을 함께 한 후보군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와 곤혹스럽다”면서 “경선이든, 추대든 시민사회 진영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 측근은 “장 교육감은 민주진보진영 통합이라는 대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5일 오전 3·1절 계기수업을 마친 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이낙연, 담배원료 원산지 의무표시 받되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일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담배 갑의 포장지 및 광고 등에 연초의 잎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수출용 담배의 국산원료 비중은 5%에 그치는 등 국내산 담배의 국산 원료 사용이 매우 저조해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쌀 개방문제 신중히 결정해야”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쌀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중FTA, 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협상결과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쌀시장 개방은 현상태를 유지(Stand-Still)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면서 “정부는 6월까지 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상태 유지를 위한 WTO사무국과의 사전협상 등 최선의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각화동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일 광주 북구 각화동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각화동 도매시장은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지만, 24년 된 노후 시설로 상인이나 이용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수산물의 물류 뿐만 아니라 도매업 관련 업종부터 상인들을 위한 편의·복지·여가시설까지 윈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도매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각화동 도매시장의 이전 또는 확장 등 대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단체장

서종진 “단일화보다 지역민 마음 잡아야”

서종진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4일 기초단체장 무공천과 제3차 신당창당 결정과 관련, “후보 단일화 논의보다는 지역민의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중차대한 선택”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논하는 일보다 이번 결정으로 혼란스러워 하실 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규, ‘이야기가 있는 삶...’ 출판기념회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인 김승규 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4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되고 싶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김 전 사무처장은 책을 통해 “언어는 앞에서 깨어나면 좁은 모퉁이를 떠나 넓은 대양으로 나가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후대를 위한 알을 가득 품고 모퉁이로 회귀한다”며 “언어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그동안 넓은 세상에서 배운 나의 모든 역량을 고향 발전을 위해 쏟아 부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오랜 시간 정부 부처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일화 등도 곁들였다.



김삼집, ‘어르신이 살기 편한...’ 출판기념회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인 김삼집 전 참여자치 21 대표는 지난 3일 광주 알선시아 컨벤션홀에서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순선 의원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시민운동 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한 정치와 지방행정을 바라보며 느낀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과 새로운 비전을 책에 담았다”면서 “지방 정부도 능동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지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광조 “트라우마센터·예술촌 병행 설립을”

신광조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4일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될 옛 국군통합병원부지에서 시민 예술디자인촌을 병행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센터의 치유기능과 함께 시민들의 예술창작 및 향유공간으로 ‘시민 예술디자인촌’을 설립해 문화수도 광주의 시민참여형 창작소비가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복, 광양시장 출마 선언

정현복 전 광양부시장이 4일 광양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부시장은 “세계 속에 빛나는 위대한 광양, 국내 최고의 행복 수도 광양, 전남 제1의 도시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은 결정권자인 만큼 당선된 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행정’,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개발행정’을 통해 광양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영원한 청년...’ 오늘 출판기념회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새정치 경계야카데미 김대현 사무총장은 5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영원한 청년, 김대현’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사무총장은 이 책에 지난 1989년 광주대동고 학생회장 시절, 전교조 지지 시위를 주도하고 광주지역 고등학생 대표자 협의회(광고협)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수배·구속돼 5년간에 학교를 졸업했던 일화 등을 담았다. 또 책을 통해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간직해 온 청년의 기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청년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신, ‘...완도사랑’ 오늘 출판기념회

완도 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신 전 완도군의회 의원은 5일 완도를 넘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김신의 특별한 완도사랑’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에는 지난 8년간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김 의원이 느낀 읍·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고, 군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담았다. 김 전 의원은 “이번에 출간된 저서는 관내 도서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와 행정, 관광, 농·수산, 복지 등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 우리 고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책으로 엮었다”고 말했다.



김영규, ‘섬김의 정치!...’ 출판기념회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은 4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섬김의 정치! 나의삶여수를 보듬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복호 전 국회부의장과 김성곤·주승용 국회의원, 박순국 YCTEC 회장과 민주당원을 포함한 시민 4000여명이 참석했다.

책을 통해 김 전 의장은 20여년의 풀뿌리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치 비전을 제시했다. 다양한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도 제시했다. 또 그는 참석자들의 생각을 듣는 대화의 시간도 함께 진행했다.



진선기 “북구청장 선거 완주해 선택받겠다”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인 진선기 광주시의회는 4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과 무공천 방침과는 상관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북구청장 선거를 끝까지 완주해 구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원년에 첫 구청장을 뽑는 선거에 정당하고의 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오광복기자 cki@kwangju.co.kr
/신안·광양·여수=이상선·박영진·김창희 기자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8기)	광주교육대학교(9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3.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3. 8.(토) 09:10 (중급반)	·월, 목 아간반: 2014. 3. 3.(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3.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3.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1. 23.(목)~3. 8.(토)	2014. 1. 23.(목)~3. 8.(토)
수업기간	2014. 3. 7.(금)~2014. 8.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3. 3.(월)~2014. 8.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0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0-107-307803	₩30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8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6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eue.ac.kr/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추천했어요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公告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1.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2.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3.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